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1월 7일 (제932호)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2018년을 맞으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3:13~14).

나는 새해를 맞으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생각했다. 이 말씀이야말로 새해를 맞는 올바른 자세라고 여겨졌기에 그랬다. 먼저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다. 지난 것은 잊어야 한다. 그것이 좋고 성공적인 일이었다 해도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나쁘고 실패한 것이었다 해도 그것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과거에 연연하면 진보는 없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가. 강을 건넌다면 뗏목은 버려야 한다.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해야 한다.’ 즉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 2018년에 이룰 꿈을 향하여 도전해야 한다. 꿈은 클수록 좋다. 꿈은 야무져야 한다. 비록 돌베개를 베고 자더라도 야곱과 같은 꿈을 꾀야 하고,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꾀야 한다. 그러나 꿈을 꾸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저 몽상가에 불과하다.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배워야 한다. 꾀대를 향하여 귀는 막고 달려야 한다.

2018년, 우리 교단의 슬로건은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살자’ 이다. 우리 모두는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막연히 ‘해보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먼저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여겼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리스트로 작성하고, 하나씩 그것을 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다보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확인컨대 그런 자에게는 범이 날개를 다는 축복이 임한다.

2018년, 예수중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한다.

길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라

2018년 새해가 밝았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살자!”는 슬로건을 선포하신 목사님은 송구영신예배에 새하얀 연미복을 입고 등단하셔서 2018년 새해 첫 메시지로 “길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길은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차마다 내비가 달려있고, 핸드폰으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시대에 길 좀 잃었기로서니 다시 찾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잃으면 다시 찾을

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중요했던 느브갓네살왕, 그들은 사람을 얻음으로 국가를 융성케 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12제자 및 70인의 제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잃은 사울, 요셉을 잃은 보디발의 아내, 야곱을 잃은 라반, 그들의 종말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을 잃은 나발은 죽음을 면치 못했으나 다윗을 얻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왕비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갈리고 있음을

을 돌립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인정해주고 믿어줘야 합니다. 인연은 하나님이 맺어주지만 관계는 내가 형성해가는 겁니다. 꿀을 얻기 원하면서 꿀통을 발로 차서야 되겠습니까? 꿀을 따다주는 벌이 쏜다고 벌집을 건어차 버리면 꿀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벌들이 달려들어 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들을 신뢰하고 인정해주면 두말할 것도 없이 목숨을 걸고 충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2018 송구영신예배(KBS 88체육관)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11장 30절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했는데, 많은 믿음의 지혜로운 선전들이 사람을 얻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용사 37인(삼하23장)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그를 도운 사람들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신복들을 그대로 넘겨주었고, 솔로몬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대의 중신들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을 중용하더니 나라가 두 동강 나고, 할아버지, 아버지 대에 주변국들의 존경과 조공을 받던 시온의 영광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성폭행범인 요셉을 중용한 애굽왕 바로나 포로로 끌려온 다

보여줍니다. 정치, 경제, 목회 등 그 어떠한 분야에서 이 원칙은 동일합니다. 사람이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삼고초려(三顧草廬)는 가장 유명한 일화일 것입니다. 비록 아들 같은 나이의 제갈량이었지만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세 번씩이나 자존심을 무릅쓰고 찾아가 당대 최고의 전략가를 얻었기에 삼국통일의 대업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감동을 시켜야 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름은 산성 문빛장 같으니라”(잠18:19).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제는 인정을 해주면 목숨을 걸고 충성하지만, 무시하면 가차 없이 등

그래서 제가 단연코 주장하는데, 검사, 판사, 의사, 목사..., 사, 사, 사, 그 중에도 가장 귀하고 존경 받는 것은 봉사(奉仕)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매사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삶 이상 가치 있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없습니다.

2018년 새해,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봉사, 길은 잃더라도 사람은 잃지 않는 지혜로 범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움의 끝은 실천, 이제 듣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여 2018년 새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모두가 누리자.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히12:1~14)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죄악과 이혼하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2017년 송구영신에 배 영상을 같이 봤습니다. 제가 왜 2017년을 마무리하는 주간에 연말결산을 제쳐두고 그것을 다시 보여드렸을까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에서였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나’ 돌아보고 반성하고 깨달으라고 그리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회사 사장에게만 인정받아도 팔자가 괴거늘, 대통령에게 인정만 받아도 한 권세 하거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정(認定)’이란 한문을 보면 말씀 언(言)변에 참을 인(忍)으로 이루어진 알 인(認)자와 집 면(宀)변에 바를 정(正)이 합쳐 정할 정(定)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뜻을 헤아려보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환난과 고통이 와도 참고 바르게 행하여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인정받는 것의 출발이 가족, 가정 안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에게 먼저 인정을 받은 자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인정받은 이삭, 다윗이나 요셉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정받는다’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信賴)는 사람 인(人)변에 말씀 언(言)이 합쳐서 신(信)이고, 뢰(賴)는 뭍을 속(束)변에 질 부(負)가 합쳐서 된 것입니다. 즉 ‘내 말을 사람의 등에 실어 보낼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이 신뢰입니다. 내 모든 것을 맡겨도 걱정되지 않는 사람, 의심되지 않는 사람, 안심되는 사람이 신뢰받는 자요, 세상의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는 자가 신뢰받는 자입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지고 아브라함은 조금의 흔들림이나 갈등 없이 사흘 길을 갔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산에 올라 아들에게 칼을 대려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칼을 거두게 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22:12).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한다고, 인정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

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22:17~18)는 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지고 가다 죽음에까지 이르지만 흔들림 없이 끝까지 완주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시어 높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신뢰받고 인정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죄악과 이혼해야 합니다. 이별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별과 이혼은 전혀 다릅니다. 이별은 다시 만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예 죄와는 갈

라서야 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갈라서야 하는가 하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경

은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오른 눈이 죄를 지었거든 오른 눈을 빼버리고, 오른 손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마5:29~30).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기거하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5:14)고 하였고,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현장에 붙들려온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8:11)고 하신 것입니다. 죄악과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6:24).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섬기다 들기면 안 죽을 만큼 맞고 쫓겨날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 쾌락, 명예를 좇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

음을 물론이고 지옥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그러니 죄악과 당장 이혼하십시오. 둘째는 악연과 이혼하십시오. 죄의 연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영킨 실타래는 풀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실이 아깝다 말고 과감히 잘라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삼손과 들릴라는 악연이었습니다. 삼손이 그 연을 잘라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나실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눈이 빠진 채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연도 그랬고, 여호사밧도 아합과 악연을 맺었다가 겨우 죽음만을 면한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

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골3:6)

이제 2018년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자’는 말씀은 2017년 슬로건만입니다. 평생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과 이혼하고,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신용불량자란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에 갚지 못한 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 자기 경영을 못해서 죄악에 가담하고 물들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말로 구제 못할 신용불량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해 신용이 떨어지면 버림받습니다. 그러니 어서 깨닫고 과감히 죄악과 이혼하고, 잘못된 연을 끊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시119:162~165). 이 말씀대로 죄악과 거짓을 멀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됩시다. 또한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새해에 범이 날개를 다는 축복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고후6:14~16).

성경 느헤미야 13장에서 느헤미야는 ‘이방여인과 혼인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악연을 맺을 때 어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느13:26~27). 솔로몬이 이방여인들을 첩으로 맞아 그로 인해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과의 연을 끊지 못해 애달파할 때 하나님이 사무

자기관리에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여러분, 검은 개와 흰 개를 섞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그것을 골라내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연을 맺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연을 끊어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처음 연을 잘 맺어야 합니다.

이제 2018년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자’는 말씀은 2017년 슬로건만입니다. 평생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과 이혼하고,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신용불량자란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에 갚지 못한 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 자기 경영을 못해서 죄악에 가담하고 물들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말로 구제 못할 신용불량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해 신용이 떨어지면 버림받습니다. 그러니 어서 깨닫고 과감히 죄악과 이혼하고, 잘못된 연을 끊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시119:162~165). 이 말씀대로 죄악과 거짓을 멀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됩시다. 또한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새해에 범이 날개를 다는 축복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2018년 신년사 ::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예수중심교회



요즘 세상은 따라가기조차 힘들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가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들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자율주행차나 전기차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나 각종 산업기기들,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물 인터넷.... 의미조차 파악하기 힘든 처음 듣는 단어들이 우리 삶에 구석구석 스며들고 있다. 머지않아 자동차가 지구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바이오 헬스케어의 발전으로 이미 백세시대는 누구나 인정하는 세상이 되었다.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릴 적을 생각하면 그냥 기가 막힐 뿐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을 닮게 만드

서 인간들이 끝없이 창조하고 발명해 나가는가보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염려하실까. 당신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지혜와 창조성으로 끝없이 발전해나가는 과학이나 문화를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대견해하시고, 한편으로는 인간들이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지는 않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 노예에서 해방시켜 가나안에 정착시키기 전부터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걱정하셨다. 그들이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을 잊게 될까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걱정대로 가나안에 정착하여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롬11:36)을 인간들은 쉽게 잊어버린다. 마치 자신들이 창조자가 된 듯이 기고만장하며 바벨의 사건을 자초하

고는 끝없이 반복한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발전은 심히 걱정스럽다.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뿐이고,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안에서 자꾸 연구하여 발전해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인간들의 열심과 지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보라’고 2018년 교단의 목표를 주셨다.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 하신 것이다. 우리의 영·혼·육, 가정, 사업, 나라...,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살이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시야 한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중심에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열 두 지파가 에워싸며 진을 치듯이, 우리 모든 삶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주변에 진을 쳐야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승리한다. 결국 일어난다. 아브라함이 그랬

고, 이삭, 야곱, 요셉, 욥,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모두가 그랬다. 자기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무너진다. 결국 패망한다. 아담이 그랬고, 니므롯, 가인, 고라, 사울왕, 아합, 가룟 유다가 그랬다. 2018년,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자. 지극히 작은 일부터. 복해에 떠도는 열음조각들은 바람 부는 대로 밀려다니지만, 바다 속에 큰 덩어리를 담고있는 빙산은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바다 속에 흐르는 해류의 방향을 따라 유유히 흘러간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유유히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흘러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심령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풍조나 세상에 부는 바람과 상관없이 유유히 천국과 하늘의 상을 향하여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얻을 축복이 우리 교단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라며...

서울교회 담임 이시대 목사

축복 받을 습관을 만들자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총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자!”라는 새해의 목표를 받았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잘한 것보다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좀 더 노력했다면, 좀 더 인내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만약 주님이 재림하신 자리에 이런 후회가 있다면 참으로 불행할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새해에는 과거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위로 영겨있는 실타래 자르듯 과감히 자르고 시작하자.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구호만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목표를 정하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지만 막상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다. 왜? 습관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습관은 수없는 반복을 통하여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구호만 있지 반복적인 자기 훈련을 하지 않고 여전히 옛 습관에 젖어있으면서 자신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절대 그럴 수 없는 법! 예전에 지교회를 맡고 있을 때다. 주일에 새신자가 왔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셨다. 우리 성도분의 아버님이 오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의 능력을 전하면서 그분에게 기도만 해주고 말았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가까운 곳에서 총회장님께서 집회를 인도하셔서 그분을 모시고 집회에 참석했다. 예배 후에 총회장님께 그분을 모셔갔는데 총회장님께서 귀신을 쫓으

시고 바로 그분에게 ‘내 눈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하셨다. 그 순간 그 성도분이 일어나셨다. 그 장면을 본 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왜? 나는 그분에게 기도만 해주었을까? 귀신을 쫓고 담대히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어야 했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수없이 기도하며, 혹은 다니면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후에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계셨고, 그분이 예배 후에 기도를 받으러 오셨다. 그 순간 망설여지는 마음이 있었지만 수없이 이날을 위하여 반복하고 반복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고 ‘내 눈을 보라’ 하며 ‘일어나 걸으라’ 명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하여 반복하고 또 반복했고, 습관이 되도록 지

금도 반복하고 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나에게는 두 친구가 있다. 노력과 기도라는 친구가 있는데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하셨다. 너무나 간단명료하신 말씀인데 실천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세상에 결코 공짜는 없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습관이 따라와야 한다. 복 받을 습관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한다. 2018년 새해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축복의 시간을 그냥 보낼 것인가? 아니다. 우리가 축복의 해로 맞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총회장 목사님께서 올해 표어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사는’ 축복받을 습관을 반복하여 만들자. 할렐루야!

인천교회 담임 장영국목사

:: 성경에세이 ::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여보게! 벌써 2018년이네. 세월 정말 빠르구먼.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지.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다짐을 하곤 하지. 나는 나를 따라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다짐을 했으면 하네. ‘나는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지.’ 요즘 교회들이 시끄럽네. 장로들이 목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라네. 목사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불평을 쏟아내고, 당을 지어 비판하는 장로들이 많네. 장로요, 권사요 하는 직분이 무슨 감투인양 행세하려는 것이지. 그들은 교

회의 걸림돌이라네. 그들은 마치 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지금은 의기양양하지만 걸림돌은 언젠가 뽀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네. 다만 예수님도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았듯이 교회인지라 그냥 내버려두고 있을 뿐이라네. 이왕이면 교회의 디딤돌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주춧돌 말일세. 내 이름이 초석(礎石) 아닌가. 내가 이 교단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뜻이라네. 나를 밟고 우리 교단과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땅끝예수전도단 회원들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이 땅에서도 천국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름을 갖게

되었네. 자네를 돌아보게. 나는 교회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말일세.

여보게!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고 묻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라고 답하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제야 당신이

당할 일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만류했네. 그러자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시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신 게야. 이유인즉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였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이 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야 하네. 그래야 교회 안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네. 다가오는 2018년에는 우리 모두 교회의 디딤돌이 되어 보세나. 朋友

대구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의 간증

전국의 한약을 판매하는 대구의 약령시 약전골목 한쪽 구석 맨바닥에 앉아 풀을 파는 풀장수 정씨가 있었다. 그는 술주정뱅이다. 그런데 그 아내는 대구 제일교회를 잘 다녔다. 그때 대구 제일교회에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다. 원래 김익두는 강파에 술주정뱅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 대구 제일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 아내의 권유로 이 부흥회에 참석한 정씨는 김익두 목사님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시다! 복을 받는 비결은 첫 번째, 주일을 잘 지키고, 둘째는 십일조 생활을 잘하고, 셋째는 새벽기도회 빠지지 말고, 넷째는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세요.” 라는 말씀에 ‘나도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벗어나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받아보자.’고 결심하고는 그 다음 주일부터 꼭 주일을 지켰다. 풀 파는 통 옆에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놓고 십일조 함을 만들어서 10원어치 팔면 1원을 넣으며 십일조 생활을 했고,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다. 목사님이 주일 말씀을 증거하면 생명 걸고 그 말씀을 지켰다. 약전골목 사람들은 술주정뱅이가 사람 되었다고 칭찬했다. 그러자 한약방을 하는 친구가 하루는 정씨를 불러 “야! 너 사람도 되었으니 이제 풀장사 그만하고, 약방을 한번 해봐라.”고 했다. 정씨가 “나는 돈도 없고, 약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나?” 했더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해봐라.” 했다. 정씨는 친구가 이것저것 챙겨준 약재료로 길바닥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친구가 공책에 써준 대로 감기 걸린 사람이 오면 이것 이것을 넣고, 열병이 있는 사람이 오면 이것저것 넣어 지어주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씨가 공책에 적힌

대로 하는데 그에게 약을 지어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다. 또 정씨 집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한 때 장티푸스가 유행했는데 정씨가 지어준 약을 먹으면 나왔다. 심지어 약방에 약이 떨어져 옆집에서 빌려와서 지어주었는데도 옆집에서는 안 나왔는데 정씨 약국에서 지어먹으면 다 낫는 것이었다. 하루는 약국 주인들이 정씨 약국에 와서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약을 짓기에 당신 약을 먹으면 낫느냐?” 정씨 왈, “당신들이 쓰지 않는 재료가 우리 약에는 들어갑니다. 기도라는 재료가 들어갑니다.” 정씨는 약을 지을 때마다 기도를 했다고 한다. 그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새로 짓게 되었는데 이 때 건축위원장이 되었다. 그래서 돌로 교회를 짓자고 결정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돌중에서 제일 좋은 돌로 짓자’ 해서 알아보니 전라북도 황등의 돌이 제일 좋단다. 정 장로는 황등에서 돌을 사 기차를 대절해서 대구까지 가지고와 교회를 지었다. 서현교회가 그렇게 지어졌다. 지금도 그대로 있다. 서현교회는 당시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세워졌다. 정 장로는 대구 주변의 어려운 50~60개 교회를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었다. 또 수십 년간 가난한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그 중 목사가 된 사람만 수십 명이다. 또 대구의 수천 가정의 정 장로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정 장로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정 장로가 잘 되게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 장로는 어려운 농촌교회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대구에 오면 꼭 약국에 들르라고 해서 갈 때 여비를 주는데 세어서 준적이 없다고 한다. 세어서 주면 인색해진다고 주머니를 벌리라고 해놓고 그냥 넣어주었다. 고맙다고 말하면 버

럭 화를 냈다. “나는 저쪽에서 땅바닥에 풀장사 하던 정규만이다. 오늘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대구가 생긴 이래 정규만 장로 같은 장례식이 역사상 없었다. 그의 도움을 받은 모든 교회,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 목사님들,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울면서 그 뒤를 따랐다. 상여 앞에 대나무에다 성경말씀을 쓴 천을 달아 들고 가는 만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 교회 시무하시던 목사님은 윤철주 목사님이다. 정 장로가 주일학교 부장을 할 때 똑똑한 학생 한 명이 있어 장학금으로 공부를 시켜 목사가 되었는데 정 장로가 나중 그 분을 교회에 모시고 왔다. 그 분이 윤 목사님이다. 그런데 정 장로는 자기의 도움으로 공부를 했고, 아들 뻔 되는 목사님인데도 심방을 가면 가방을 들고 꼭 쫓아다녔다. 윤 목사님이 교회 건축에 전 재산을 내어놓고 어려운 생활을 할 때다. 한번은 윤 목사님이 새벽기도회를 가려는데 신문지 덩어리가 땅에 떨어져 있어 펴보니까 한 달 먹고 살만큼의 돈이었다. 다음에도 또 돈이 떨어져 있어 윤 목사님은 누가 그러는지 밤새도록 현장을 지켰는데 바로 정 장로였다. 쫓아가서 붙잡았더니 정 장로가 하는 말이 “만약에 이 일이 새나가면 교인들이 목사님을 정 장로가 먹여 살린다고 말이 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저는 약전골목에 풀장사 정규만이고,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만 아십니다. 목사님과 나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어찌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는가. 평생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살다간 분이 바로 정규만 장로다. 우리도 이 분의 신앙을 본받자.

출처: 하은교회사랑넷

볼 수만 있다면

어렸을 적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하나님을 한번만이라도 볼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누군가 그랬다. 사람이 하늘의 해도 너무 눈이 부셔서 못 쳐다보는데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런 기도도 했었다. 꿈에 한번만 나타나주시라고. 그랬더니 어찌다 한 번씩 목사님이 꿈에 나오시기도 했다. 감사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다. 나중엔 그런 생각도 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되어도 좋으니 예수님을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요20:29).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그 동안 알지 못했다는 것을.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 해 365일 매일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가족 커버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 안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아마 세상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 거다. 그러나 정작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집안 어딘가에 놓여있는 당신의 성경책을 오늘부터 다시 한 번 펴서 그 말씀을 보아라. 맞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설레지 않는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요일 1:1~2). **박찬영**
cross35@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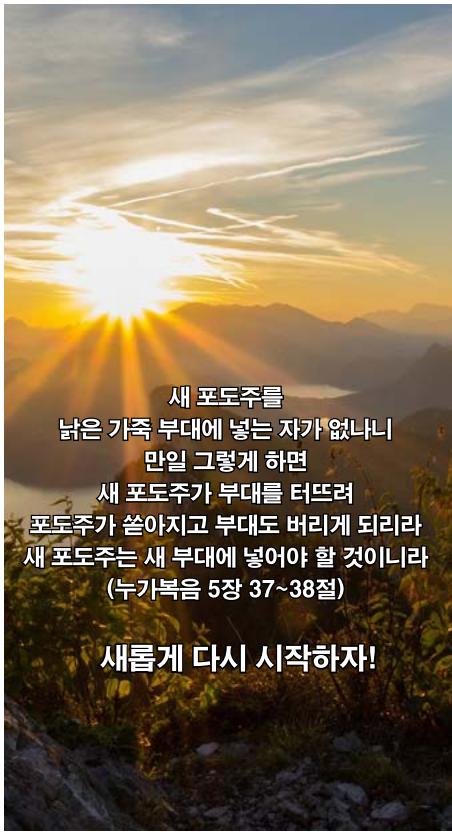
암 검진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우리가 암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남자가 평균수명인 77세까지 살 경우 5명 중 2명이, 여성이 평균수명인 83세까지 살게 될 경우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제1의 사망원인 역시 암이다. 다행히 의학의 발달로 암환자의 5년 생존율(암이 5년 동안 재발하지 않는 것)은 날로 높아가는 추세다. 앞으로도 암 치료법은 쉬지 않고 개발되겠지만, 당장 암에 획기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치료법이 나타나리라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현재로서도 암 종에 따라 90% 이상의 5년 생존율 예후를 보이는 기적적인 치료방법은 존재한다. 바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다. 암을 치료할 때 병기에 따라서 예후가 무척 다른데, 예를 들어 1기 이하의 병기에서

치료할 경우 위암은 90%,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 80% 환자가 5년 이상 생존율을 보인다. 물론 간암처럼 23.3%의 낮은 5년 생존율을 보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병기가 높아질수록 생존율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암 검진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주기적인 암 검진으로 암을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 그것이 암으로 인한 비극을 막는 방법이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잘 걸리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개 암 종에 대한 암 종별 검진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위암의 경우 40세 이상 남녀에서 위장조영검사나 위내시경검사를 2년 주기로 검진을 권한다. 간암의 경우 30세 이상 남성이나 40세 이상 여성으로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바

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복부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를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한다. 대장암의 경우 50세 이상 남녀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와 에스결장경검사를 5~10년 주기로 검진할 것을 권한다. 유방암의 경우 40세 이상 여성에서 유방촬영과 유방임상진찰을 2년 주기로 검진토록 하며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이면서 성경험이 있는 여성은 자궁경부세포검사를 1년 주기로 권하고 있다. 새해에는 암 검진으로 내 육체의 건강을 잘 관리하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3:16).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5장 37~38절)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